

‘神의 직장’ 취업 내년 더 힘들어진다

내년에 공기업 취업은 올해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신입사원 채용을 거의 안하는 공기업들도 있는 데다 선발을 하더라도 그 인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력자·전문직 자격증·고령자 등이 대거 공기업 입사에 나서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기업 입사경쟁률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실업자들의 입사는 더욱 어려워 전망이다.

19일 주요 공기업들에 따르면 내년 경

공기업 채용 대폭 감축·새정부 구조조정 압박 예상 경력직 등 자격제한 폐지... 경쟁률 더욱 치열할 듯

기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주택공사는 내년엔 결원을 채용할 수 있는 50명 가량만을 뽑을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채용규모인 179명의

27.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64명을 뽑는데 이어 하반기에는 50명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시설확충에 따라 채용규모가 114명이나 났으나 내년에는 신입사원 채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는 밝혔다.

한국감정원도 올해 하반기에 31명을 뽑지만 내년에는 정원을 감안해 채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86명에서 내년에는 30명이내로, 농촌공사는 125명에서 100여명, 한국수자원공사는 14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축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채용이 없었던 관공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각각 20명 정도를 내년엔 뽑을 계획이다.

금융관련 공기업들은 일반 공기업에 비해서는 채용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은행 등의 내년 채용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28명에서 내년에는 ‘10명이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5명에서 10~15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연합뉴스

■2008 공기업 채용 규모

기업명	올해 채용규모	경쟁률	내년 채용규모	올해 하반기 특징
기업은행	380명(상반기180명·하반기200명)	120:1(하반기)	400명 이상	지원자격 폐지
산업은행	75명(하반기)	50:1	70명 인원	심층면접 도입
한국은행	35명(하반기)	35:1	미정	면접비중 늘리고 영어회화
자산관리공사	없음		20~30명	사회봉사 확대
주요금융공사	28명(하반기)	57:1	10명 이상	영어구술테스트 PT면접
증권예탁결제원	25명(내외(하반기))	56:1	25명 내외	영어회화 20%~10% 하향
신용보증기금	30명(하반기)		30명 내외	논술 도입
대한주택보증	22명		15명 내외	면접 강화
코레일	898명(하반기)	38:1	898명 감소	48세 인사
코트리아	20명(하반기)	161:1	20~30명	45세 신입사원 57세 경력사원
한국전력	199명(하반기)	52:1	올해보다 감소 가능성 있다	87개국 인성(리서치, 스펀, 이력서 추가)
aT	없음		20명 가량	어학성적비중 축소
수자원공사	140명(상반기)		100명	전공관련 PT면접
가스공사	70명(하반기)	166:1	올해보다 감소 가능성 있다	영어구술능력 면접
수출입은행	12명(상반기)	120:1	20명	영어 성적하향 폐지
가산산업공사	20명(상반기)	185:1	20명 내외	
공무원연금공단	25명(하반기)	220:1	10~15명	
중기진흥공단	39명(하반기)	50:1	올해보다 적어	영어 성적하향 폐지
금융감독원	50명(하반기)	45:1	미정	
한국관광공사	없음		20명 내외	심층면접
한국공항공사	86명(하반기)	118:1	30명 이내	지원자 중 취업 경력자 36%
인천국제공항공사	114명 내외(상반기64명·하반기50명)	200:1(하반기)	채용인원 예정	면접 강화
대한주택공사	179명(하반기)	37:1	50명 인원	직무전문성
한국감정원	31명(하반기)	32:1	채용인원 예정	최고경력자 46세 지원
농촌공사	125명(하반기)	39:1	100여명	
토지공사	130명(상반기)	52:1	올해보다 감소 가능성	
도로공사	147명(하반기)	33:1	100여명	

코스피 1900선 붕괴

美·中 글로벌 악재 겹쳐
32.73P ↓...1893.47 마감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급락해 2개월 만에 1,900선이 무너졌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2.73포인트(1.70%) 하락한 1,893.47에 마감됐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9월18일 종가 기준으로 1,838.61을 기록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 1,900선을 밑돈 것이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4.50포인트(0.60%) 하락한 750.79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하향 이

탈한 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충격과 중국의 과열에 따른 긴축 우려 등 글로벌 악재가 겹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 대규모 ‘팔자’에 나선 데다 장막만 프로그램 매도물량까지 쏟아져 수급까지 꼬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외국인들은 이날 정규장 기준으로 1천805억여원의 주식을 내다 팔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또 지난주 말 그동안 1차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60일 이동평균선이 실추돼 있는 지수 1,940선이 무너진 뒤 이날 반등에 실패하면서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했던 1,900선도 한꺼번에 무너진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명인들의 떡 만들기

19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떡 명인 선발대회’가 열린 가운데 전남 대표를 비롯한 전국 100여 참가자들이 다양한 맛과 모양이 각기 다른 떡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올 취업시장 최대 이슈 ‘면접 강화’

올해 취업시장 최대 이슈로 대기업의 면접제도 강화가 손꼽혔다.

잡코리아는 기업의 인사·채용담당자 844명에게 ‘올해 취업시장의 최대 이슈’를 설문(복수응답)한 결과 ‘대기업의 면접 제도 강화’(62.9%)를 1순위로 뽑았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대기업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실무관련 지식수준과 기업문화와의 적합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토익·토플·학점 등 점수제만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면접전형과 인·적성검사의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잡코리아는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올해 연봉인상률 평균 7.3%’(59.8%), ‘신입 직장인 60% 구직중독’(58.8%)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대기업의 60%가 영어면접을 시행’(57.7%), ‘외국계 기업의 대졸 초임 평균연봉 2천830만원’(55.7%)이 각각 4위와 5위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조직이 발전하려면...

“구성원 20%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라”

“조직이 발전하려면 구성원의 20%를 핵심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비금전적 보상이 중요하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오후 이 부처의 MPB홀에서 ‘2007년 공공기관 변화관리 프로그램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기관 공동학습 10개 그룹이 그동안 사례분석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발표했다. 1개 그룹에는 8~20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예를 들어, 동서발전은 6시그마운동으로 2004~2006년에 핵심인력 157명을 양성했고 1천13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그룹은 파레토법칙에 따라 구성원의 20%를 핵심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레토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말한 것으로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구성원이 창출한다는 법칙을 말한다. /연합뉴스

가계 통신비 지출 美의 3.4배

해외소비지출 비중도 미·일의 3배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통신비와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계의 해외소비 지출비중은 미국·일본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2005년 항목금액 기준)에서 인터넷·휴대전화 등 통신비의 비중은 5.4%에 달해 미국의 1.6%에 비해 3.4배나 높았으며 일본의 3.1%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교육비 지출비중은 우리나라가 6.1%에 달한 데 비해 미국은 2.6%, 일본은 2.3%에 그쳤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가장 큰 소비지출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 성격인 임료 및 수도광열비(17.2%)를 차지했으며 일본 역시 이 항목의 지출비중이 24.5%로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장비 지출이 2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이 시장원리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원칙에 따라 의료보험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다 의료수가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유가등·원자재가 상승 등 악화에도 상장사 3분기 영업실적 ‘탄탄’

영업이익 작년보다 15% 증가

상장사들의 3·4분기 영업이익이 10대 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들의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4·4분기 실적은 더욱 좋을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3·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604개 상장사 가운데 비교 가능한 543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12월결산반년 3·4분기 실적현황’에 따르면 3·4분기 전체 매출액은 174조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30% 늘었다. 영업이익은 14조5천억 원으로 15.16% 증가했다.

유가증권상장사들의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1·4분기 8.2%, 2·4분기 9.45%로 2·4분기 이후 정체를 모

습이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1·4분기 14.3%, 2·4분기 10.28%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의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분기 8.29%로 작년 동기 대비 0.4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상장사들이 1천원여치 물건을 팔아 82.9원의 이익을 남겼음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3·4분기 들어 유가등과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기업 환경은 악화됐지만 조선, 화학, 철강, 금속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개선이 이뤄지며 내실있는 경영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매출액 163조2천억 원, 영업이익 12조7천억 원으로 각각 8.68%, 15.29% 늘어났다.

금융업은 매출액 11조6천억 원, 영업이익 1조7천억 원으로 각각 18.89%, 14.28% 증가했다. /연합뉴스

펀드 판매 줄고 자금 급속 증시 이동 유동성 위기에 中企대출 억제 악순환

시중은행들의 영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전통적 자금조달처인 예금이 적립식 펀드, 증권 자산관리계좌(CMA)에 밀려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대출증가를 이끌어온 중소기업대출도 연체율 상승과 ‘쏠림현상’ 우려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익증권(펀드) 판매는 감당당국의 불안전관세 실태점검을 앞두고 벌써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지점장의 중기대출(소호대출 포함) 금리전결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금리우대 기준에 신용등급 조건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일반 중기대출은 평균 0.5%포인트, 소호(SOHO, 개인사업자)대출은 0.1~0.2%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중기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지 여부도 더욱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중기대출에 대해 지점장의 전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절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전 영업점에 기업여신 점

감각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전달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주부터 중기대출의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기존 거대고객에 대한 대출금의 기간연장이나 계약정 등은 가능하지만 신규대출은 이날말까지 억제할 것으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한 각 시중은행들의 수익증권 판매액도 이반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우려와 미국 경기둔화, 중국 경기위축, 엔캐리테이트 자금청산 등 글로벌 악재가 잇따르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지속하자 고객들의 펀드 환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현재 신한은행의 펀드 판매잔액 28조3천968억 원으로 지난달말에 비해 3천699억 원이 줄었다. 펀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특히 주식형 펀드 잔액은 16조2천763억 원으로 3천904억 원이 줄었다. /연합뉴스

한국 펀드수 9,002개... 세계 1위

펀드당 순자산은 하위권

우리나라의 펀드 숫자는 세계 최대 수준이면서도 펀드당 순자산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자산운용협회에 내놓은 ‘2·4분기 세계 펀드산업 동향’에 따르면 2·4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펀드 숫자는 모두 9천2개(사모 포함)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가장 많았다.

반면 펀드 1개당 순자산은 3천338만 달러로 40개국 중 35위에 불과했다.

미국의 펀드당 순자산이 14억2천481만 달러에 이를 것과 비교하면 펀드 한개의 펀치가 미국의 4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다.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홍콩의 6억3천343만 달러, 일본의 2억3천253만 달러, 대만의 1억2천424만 달러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국내 펀드 시장이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세 펀드가 우수순준치령을 넘어 규모가 미미한 ‘자투리펀드’들이 난립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삼성 이병철 회장 타계 20주기 추모식

이건희 회장 불참... 비리의혹 때문?

삼성그룹은 19일 창업자인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타계 20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내 호암묘역에서 추모식 및 묘소 참배 행사를 가졌으나 이진희(사진) 회장은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추모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으며 국내에 머물면서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불참은 최근 발생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부장·비리 의혹 폭로 이후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때문이 아니냐

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추모위원장인 강영훈 전 국무총리,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현승중 전 국무총리, 권이혁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길 대한민국의술원장, 김중량 한양대 총장 등 추모위원들과 내외귀빈, 삼성·한솔·CJ·신세계 등 법상성이 가족 및 친지, 삼성 사장단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수민 삼성생명 회장의 약력 보고, 강영훈 추모위원장의 추모사,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추모사, 김남조 시인의 추모시 낭독 등으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코오롱글로벌(광주지점)	광주지점 BMW SALES(정규직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1	062-521-7301
동인씨엔엘	수주관리 및 납품 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1	062-955-6236
에스텔포유	금융사 업무지원 사무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22	02-2263-5454
(주)한국에센	새주소 입력 및 jis선산 업무 관련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1/23	062-651-9767
(주)오이솔루션	영업지원 사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3	062-602-7653
신진정밀(주)	조립(생산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23	062-954-0951
(주)캐커뮤니케이션	능력있는 AE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5	062-228-7933
(주)코엔텍	토목설계및도시계획분야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5	062-525-4661
(주)서원건설	인사 담당(남직원) - (주)서원건설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1/30	062-512-8876
동화산기(주)	2007년 하반기 근무 및 경력/신입사원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1/30	062-717-7276
(주)태창공업	조립/용접/제관/CNC/푸레나/머싱센터 직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1/30	062-956-2413
(주)씨유넷	보안, 서비스 요원(삼성출력사 계림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2-2166-3437
일신테크	CNC 기계조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62-961-6590
(주)대광시스템	(주)대광시스템 경리사무부조 근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11-624-1383

(광주지점리아 512-6210 제공)